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22호 【부제 제2500호】 주제 104(2015)년 8월 10일 (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축 하 전 문

### 2015년 동아시아축구련맹 여자동아시아컵 경기대회에서 우승한 여자축구선수들에게

나는 2015년 동아시아축구련맹 여자동아시아컵경기대회에서 편전패승을 기록하고 영예의 제1위를 쟁취한 장하고 미더운 우리의 여자축구선수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동무들은 우리 여자축구는 반드시 우승할 것이라고 믿어마지 않는 당과 조국, 인민의 기대에 훌륭히 보답하였습니다.  
동무들은 불굴의 정신력과 우리 당이 제시한 공격전법으로 싸워 경이적인 체육신화를 창조하였습니다.  
동무들은 이번 경기대회에서 세계의 창공높이 람홍색공화국기를 보란듯이

휘날림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존함으로 빛나는 주체강국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치고 조국해방 일흔륙과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륙에 드리는 자랑찬 선물을 마련하였습니다.  
조국과 인민의 장한 딸들인 동무들에게 나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 전체 군대와 인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열렬한 축하와 전투적인사를 보냅니다.  
온 나라가 동무들을 기다리고있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빨리 돌아오시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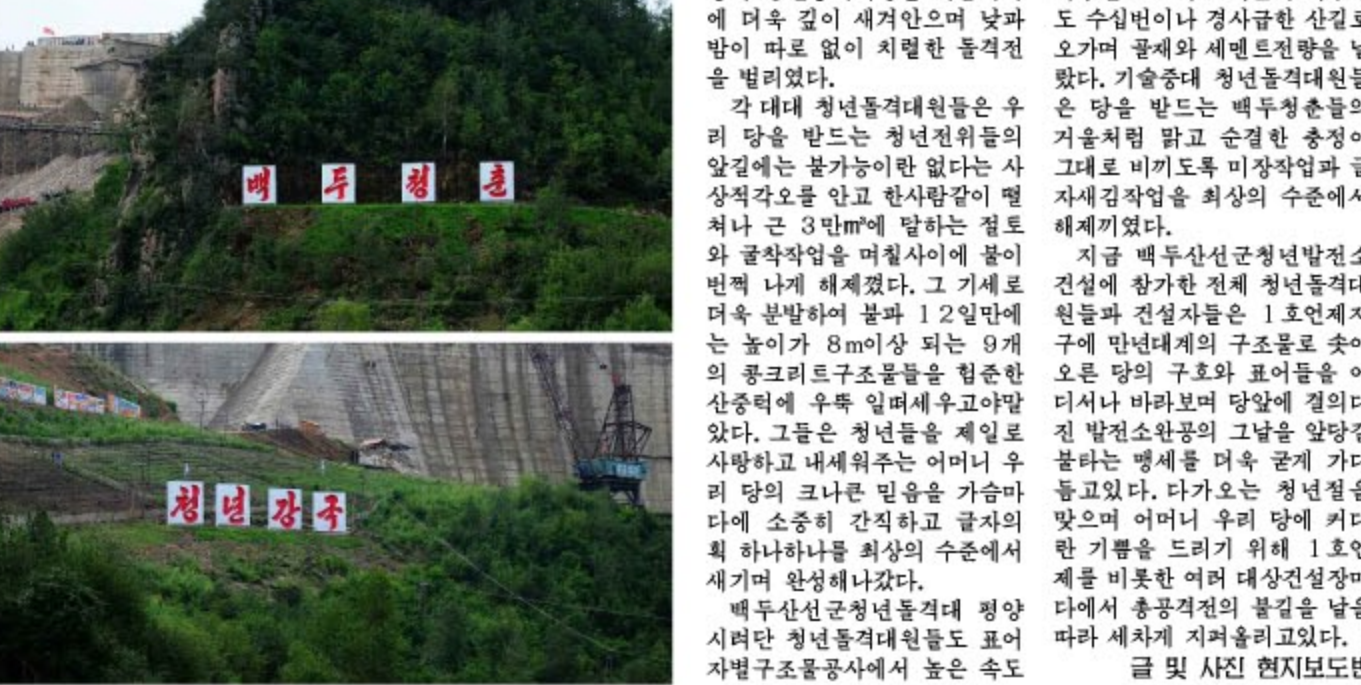
주제 104(2015)년 8월 8일

### 우리 당만을 믿고 따르는 백두청춘들의 고결한 충정의 발현 백두산선군청년 1호발전소 언체지구에 당의 구호와 표어들을 새긴 만년대계의 구조물들이 일떠섰다

백두대지의 발전소건설장에 어머니 우리 당만을 믿고 따르는 백두청춘들의 고결한 충정이 날은 자랑스러운 창조물이 솟아났다.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에 참가한 청년들중에서 1호 발전소언체지구에 당의 구호 《청년중시사상 만세!》와 표어들이 새겨진 만년대계의 구조물들이 일떠섰다.  
드넓은 언체건설장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언체우안의 산중턱에는 당의 구호가, 하루가 다르게 변모되는 언체하류의 우안과 좌안에는 표어들이 자별구조물로 우뚝 일떠섬으로써 우리 당

의 청년중시의 력사, 청년강국 건설력사를 대대손손 전하며 백두의 칼바람에 뜻을 달고 조선속도를 창조하는 위대한 김정은시대 백두청춘들의 충정의 마음이 영원토록 빛을 뿌리게 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청년들은 당의 령도밑에 서만 백두의 혈통, 주체혁명 위업을 굳건히 이어나갈수 있

으며 선군시대 청년전위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수 있습니다.》  
지난 4월 벌고 힘찬 길을 헤치시며 이곳 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륙까지 공사를 완공함으로써 우리 당의 70년력사를 청년중시의 력사, 청년강국을 일떠세운 력사라는것을 온 세상에 떨치라고 뜨겁게 호소하시었다.  
백두대지의 발전소건설을 통하여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만장약한 청년강국의 주인공들을 키우실 웅대한 작전도를 펼쳐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은 전체 청년들격대원들의 가슴마다에 충정의 붉은 피가 끓어오르고 결사관철의 의지를 더욱 굳게 해주었다.  
청년동맹중앙위원회에서는 우리 당의 청년중시사상을 다시한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여러 나라 국가, 정부수반들을 만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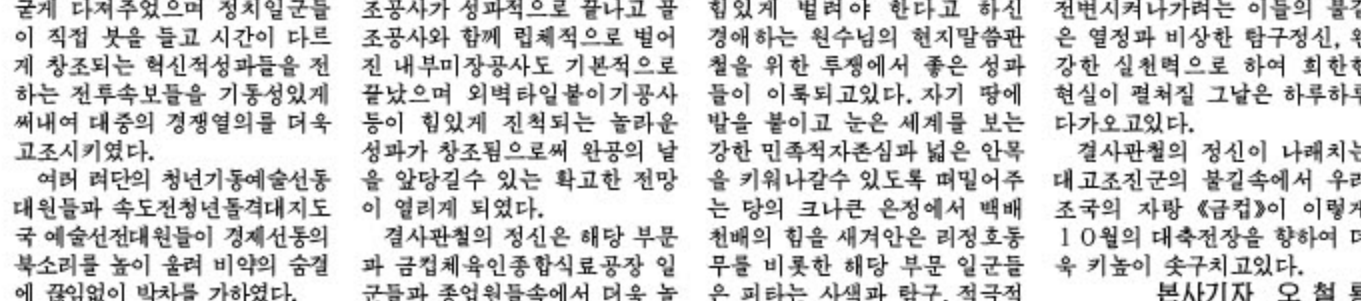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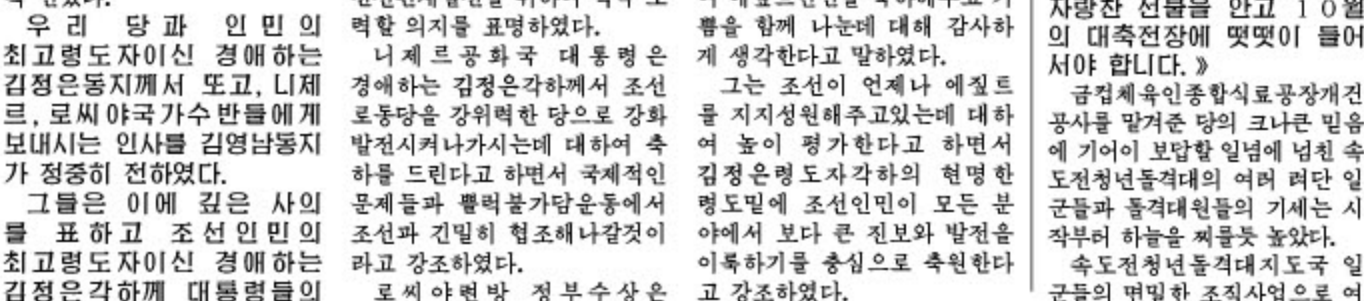
【카히라 8월 9일 본사특파원 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는 새로운 수에즈운하개통식에 참가하기 위하여 에집트를 방문하는 기간 토고공화국 대통령 포르 에소질나 그나쎅그레, 니제르공화국 대통령 마하마두 이우루, 로씨야연방 정부수상 드미트리 메드베제비치 메드베제, 에집트아랍공화국 내각수상 이브라힘 마흐라브를 각각 만났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토고, 니제르, 로씨야국가수반들에게 보내시는 인사말 김영남동지가 정중히 전하였다.  
그들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하고 조선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대통령들의

인사말을 전하여드림것을 부락하였다.  
토고공화국 대통령은 위대한 김일성각하와 김정일각하께서 토고에 주신 더없이 귀중한 원조와 지지성원을 한시도 잊지 않았고 하면서 백두청춘가담운동의 강화발전에 공헌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명도하시는 조선의 앞날은 상상하고 하면서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의지를 표명하였다.  
니제르공화국 대통령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과 백두청춘가담운동에서 조선과 긴밀히 협조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로씨야연방 정부수상은

나라이에 바쁘신 속에서도 거듭 들려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은정을 언제나 되새기며 공사에 필요한 자재보장을 적극 앞세우면서 동시에 불합당으로 건설자들의 열의를 끊임없이 북돋아주는 리정호동무부 비롯한 해당 부문과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혁신적인 일본새, 뜨거운 전정 또한 공사속도

###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 개건공사 힘있게 추진

관성이 강한 직원들이 세워져들 격대원들의 가슴마다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의도대로 공사를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함으로써 뜻깊은 10월의 대축전장을 빛나게 장식할 의지를 더욱 굳게 다져주었으며 정지일군들이 직접 붓을 들고 시간이 다르게 창조되는 혁신적성과를 전하는 전투속보들을 기동성있게 써내어 대중의 경청열의를 더욱 고조시켰다.  
여러 리단의 청년가담예술선동대원들과 속도전청년동맹지도자, 예술선전대원들이 경제선동의 북소리를 높이 울려 비약의 승격을 이끌며 박자를 가하였다.  
물 더욱 높아가게 하는 또 하나의 수동력으로 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에 대한 결사관철의 투쟁기풍이 새차게 나뉘는 속에 불과 몇 달 안되는 기간에 여러 건물물조공사가 성과적으로 끝나고 불조공사와 함께 힘겹게 넘어진 천부미장공사도 기본적으로 끝났으며 의역타일불기공사들이 힘있게 진척되는 놀라운 성과가 창조됨으로써 완공의 날을 앞당길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게 되었다.  
결사관철의 정신은 해당 부문과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혁신적인 더욱 높은



# 항일의 혁명전통, 백두의 혁명정신을 곳곳이 이어주신 그 업적 만대에 빛나라



↑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포평혁명사적지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57(1968)년 7월



왕재산대기념비를 돌아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64(1975)년 10월



삼지연대기념비건설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68(1979)년 3월



새로 개건확장된 대성산혁명렬사릉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74(1985)년 10월



무산지구전투승리기념탑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89(2000)년 3월



신흥지구 혁명전적지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90(2001)년 5월



무포속영지를 돌아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89(2000)년 3월



고대산혁명전적지를 돌아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90(2001)년 5월



옥련산일영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90(2001)년 5월







